



# 12월, 연말연시 운세사이트 방문자 급증

연말연시와 새해를 맞아 인터넷을 통해 한해 운을 점치려는 이들로 운세사이트가 문전성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운세 서비스는 정보 이용의 신속성과 편리성,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재미와 실용을 가미한 다양한 운세 서비스 등으로 네티즌들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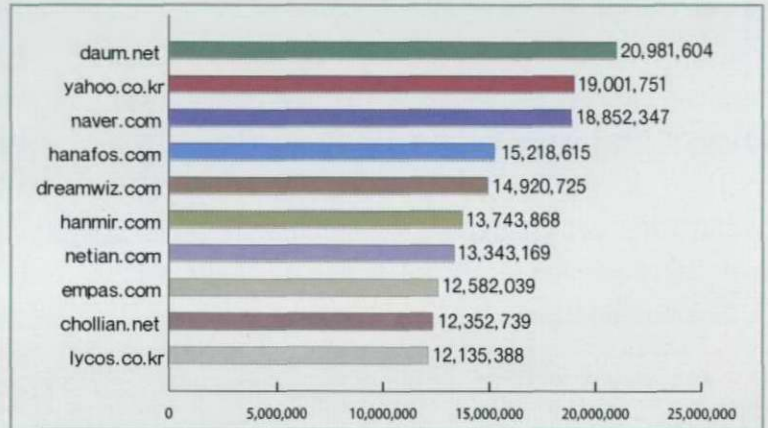
전체 운세 전문 사이트 순방문자 수는 9월에 239만명에서 12월 112.64% 상승한 510만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2월 운세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4.1%, 여성이 4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0대가 24.5%, 20대가 31.9%, 30대가 25.7%, 40대 이상이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 30대 층에서 활발하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동안 급성장세를 보인 운세 사이트들의 성장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위를 기록한 스카이온(skyun.com)은 전월에 비해 순방문자수가 37.3%가 상승한 95만 3000명이 방문했으며, 전체 순위에서도 123위가 상승한 434위를 기록했다. 2위인 사주닷컴(sazoo.com)도 전월 대비 38.2% 상승한 92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달에 비해 전체 순위가 138위가 상승한 447위로 측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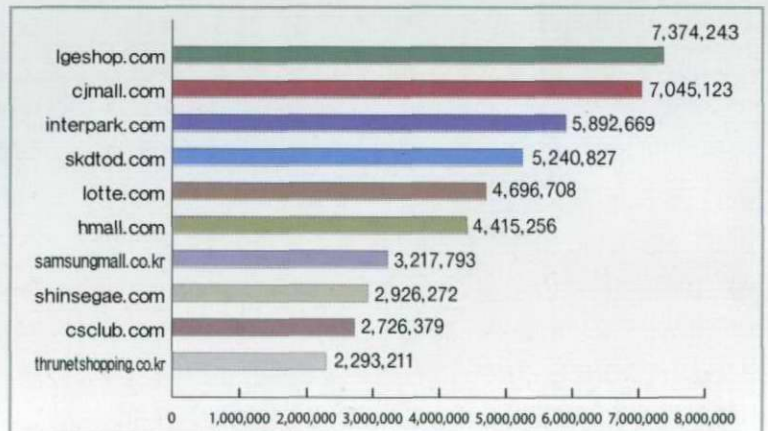
3위를 차지한 도통넷(dotong.net)과 4위를 차지한 e 라이프 커뮤니케이션(e-lifecom.com) 역시 전월에 비해 각각 131.8%, 120.6% 상승한 86만 4000명과 64만 6000명을 기록해 인터넷 운세서비스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자료 : 코리안블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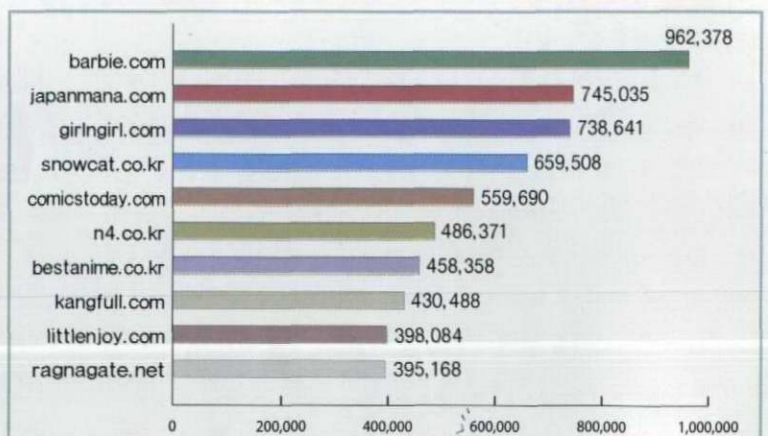
## ▶ 검색 및 포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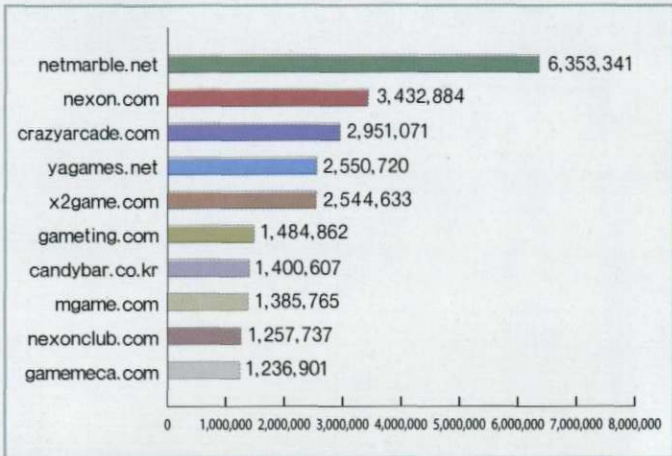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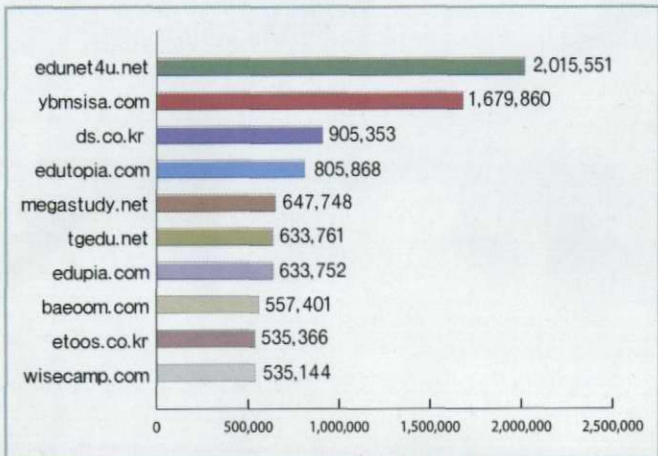


## ▶ 종합쇼핑몰



## ▶ 만화/애니/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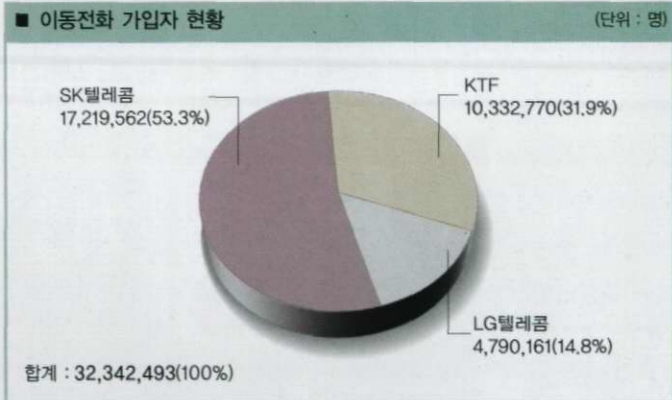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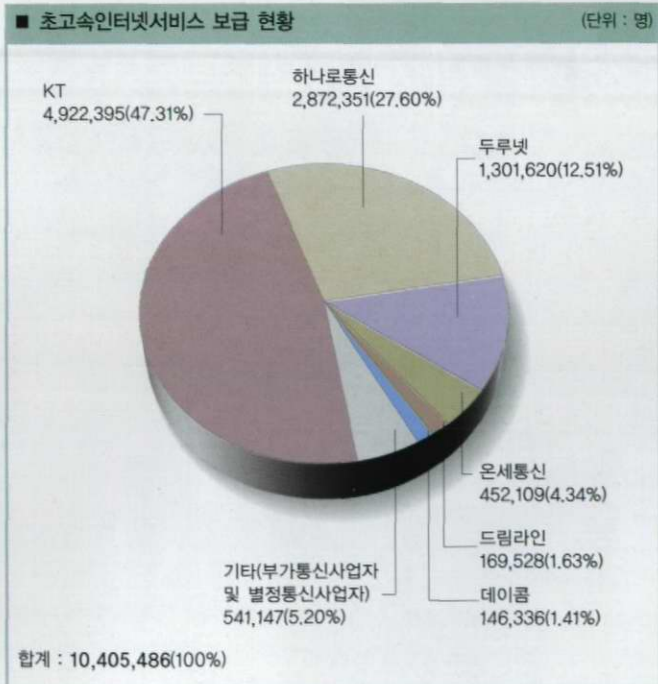


## 이동전화 가입자 8만여명 감소 ... 영업정지 조치 '직격탄'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가 큰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후 최초로 전월에 비해 가입자가 8만여명이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12월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가입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KTF의 가입자가 16만명이나 줄어들면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월에 비해 86,791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정통부가 3세대 이동전화로의 이전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제허용기로 결정함에 따라 1월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12월 가입 현황		2002년 12월말(명)	점유율(%)
	증감(명)	증감률(%)		
합계	- 86,791	-0.3	32,342,493	100
SK텔레콤	69,941	0.4	17,219,562	53.3
KTF	- 163,818	-1.6	10,332,770	31.9
LG텔레콤	7,086	0.1	4,790,161	14.8